



제5편 인물사



제 1 장

수산1리 인물사¹⁾

경민장 【警民長】

오창조(吳昌朝)

경민장. 수산2리 10대 이장 오남중의 조부이다.

고승은(高承殷)

경민장(留鄉座首, 유향좌수).²⁾ 수산1리 24, 31대 고창권 이장의 증조부이다.

구장 【區長】

오찬호(吳贊鎬)

수산1구 초대, 6대 구장. 오성보의 조부이다. 1916년 당시 구장(초대이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부락민의 찬조금으로 공회당을 지을 때 건축책임자를 역임하였다.

고명훈(高明勛)

수산1구 2대 구장과 정의면장을 지냈다. 수산1리 15, 19대 이장 고몽열의 부친이다. 일제 치하였던 1927년 수산리에서 처음으로 청년단체를 조직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공회당에 지인학숙당을 개설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수산리 2,340번지 임야 12,597평에 해송 묘목을 식재하여 조림 사업에 주력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고충국(高忠國)

수산1구 3대 구장. 수산2리에서 태어났으며, 고대보의 조부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승중(高承重)

사장(師丈), 수산1구 4대, 7대 구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고부삼의 고조부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응주(吳應周)

수산1구 5대 구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수산1리 39, 40대 이장 오인수의 조부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명순(高明順)

수산1구 8대 구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고시형의 조부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1) 인물사 수록 기준은 警民長, 區長, 里長을 비롯하여, 師丈, 訓長, 留鄉座首(유향좌수) 등은 水山里誌(2014)를 참고하거나, 해당가족 및 족보(族譜), 孝烈錄(1834), 제주항일인사 실기(2005), 우리마을 삶의 문화(2014) 등의 史料와,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명람(2015), 보훈유공자 또는 수집된 훈장 수훈 경력을 참고하였다.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마을의 발전과 업적을 남긴 분들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2) 유향좌수(留鄉座首): 족보에 기재된 직함이다. 지방의 좌수(座首)를 이르던 말로서, 경민장에 해당된다.

고진중(高珍重)

수산1구 9대 구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고관범의 조부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이 장
【里長】****김태욱(金泰旭)**

수산1리 10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김석준의 조부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조태흡(趙泰洽)**

수산1리 11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조정훈의 부친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희남(吳熙南)**

수산1리 12대, 21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오대휴의 부친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김정옥(金丁玉)**

수산1리 13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김석범의 조부이다. 제주도 학무위원과, 수산 초등학교 기성회장을 역임했다. 거동청년회 회원으로 시국에

대한 계몽활동에 주력하였다. 1935년경에는 <유서당>이란 유치원 설립인가를 제주도사로부터 받고 후원회장이 되어 2년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 큰 업적을 남기는 등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남용(高南龍)**

수산1리 14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41대, 42대 이장 고원호의 부친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몽렬(高夢悅)**

수산1리 15대, 19대 이장. 수산1리에서 태어났으며, 고진형의 부친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김석보(金錫保)**

수산1리 16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김기천의 부친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정국(吳正國)**

수산1리 17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4·3사건 때 마을이 폐허가 되어 지금

의 수산2리 마을을 1954년에 재건할 당시 관계자들이 공을 기려 칭송하면서 세워진 복구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오인홍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창운(高昌允)

수산1리 18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고성일의 조부이다. 1957년 현대식 학교 건물을 증축하여 낙성식을 기념하기 위한 의연기념비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인길(高仁吉)

수산1리 23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고경석의 부친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창권(高彰權)

수산1리 24대, 31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고원일의 부친이다. 노인회장을 역임했다. 중산간도로 확장계획을 하였으며, 지하수 개발과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노인회장 역임 등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성표(吳聖杓)

수산1리 20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오인철의 조부이다. 특히 침술(鍼術)이 뛰어나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강경협(康敬協)

수산1리 25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강용국의 부친이다. 성산면위원을 지냈다. 중산간도로 확장을 마무리하였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강순택(康順澤)

수산1리 22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강성훈의 부친이다. 노인회장 역임 등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강정원(康貞元)

수산1리 27대 이장. 국가유공자.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강문호의 부친이다. 이사무소내 창고 건립을 하는 등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김태완(金泰完)**

수산1리 28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김승찬의 부친이다. 마을 공동 수도 사업을 완성하는 등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강범식(康範植)**

수산1리 29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강창수의 부친이다. 노인회장과 동부리농업협동조합 이사를 역임했다. 전기 및 이사무소 행정전화 가설을 하는데 큰 업적을 남기는 등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강수용(康秀勇)**

수산1리 30대, 35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다. 용눈이~모낭곶 사이 8km구간을 시흥, 오조, 신양리 등과 공동으로 농로를 개설 확장하였으며, 새마을 사업으로 이사무소에서 학교 앞까지 콘크리트 포장 사업과 마을 안길 6km 포장 사업을 주도하였다. 1976년에는 수산~고성간 속칭 노을러시길 1km를 12m로 확장하여 포장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조명룡(趙明龍)**

수산1리 32대, 36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조정담의 부친이다. 지금의 노인복지회관 신축당시에 회관 건립을 위해 재일교포와 고진후 노인회장과 함께 큰 역할을 하였다. 삼건사 자금으로 마을공금을 확보하고, 향약을 제정하였다.

**강자육**

수산리 33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강태웅의 부친이다. 새마을 창고 건립을 하는 등 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태을**

수산1리 34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김윤희의 부친이다. 마을토지를 최초로 등기하여, 마을재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80년도에는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등 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영희

수산1리 37대, 38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다. 水山里誌(1994)를 발간하였고,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과 농업용수 1, 2지구를 지구를 시설하였다. <울렛^ㄹ르 하로산당>을 현대식으로 신축하는데 앞장서서 해결하였다. 명예 농촌지도자를 시작으로 농촌지도자 성산읍회장, 농촌지도자 남제주군협의회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명예원장, 남제주군 농어촌특별대책위원, 뉴라운드대책협의회 위원, 농촌지도자 성산읍회 50년사 도서편찬위원회장을 역임했다.



오인수

수산1리 39대, 40대 이장, 3대 청년회장을 역임했다. 수산리에서 태어났다. 농로 포장과 고성, 수산간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였으며, 농업용수 3지구를 시설하였다. 복합체육문화교류장인 수산체육공원 시설사업 설계 및 착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고원호

수산1리 37대 이장, 4대 청년회장을 역임했다.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고대수의 부친이다. 농로포장과

수산1리 포제단 토지를 매입하였다. 복합체육문화교류장인 수산체육공원을 설립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강현건

수산1리 43대, 44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다. 한뫼에서 누루뫼에 이르는 건천개보수 공사와 마을안 오페수 처리 공사를 주도 하였으며, 남부발전소에서 추진하는 풍력발전 사업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장, 정보화마을 운영등으로 마을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유통 1사 1촌 자매결연(20068), 제주은행 성산점 자매결연(2007), 서울서대문구 홍제3동 문화촌현대아파트부녀회 자매결연(2007), 남서울농협협동조합 자매결연(2006)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오찬울

수산1리 47대, 48대 이장. 2대 청년회장을 역임했다. 수산리에서 태어났다. 2014년에 학교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였다. 임대주택(대왕주택) 2동을 신축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침수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저류지를 설계하였다. 2015

년에는 제2공항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김석범

수산1리 45대, 46대, 49대 이장, 11대 청년 회장을 역임했다. 수산 리에서 태어났다. 우리조상들의 생활상(김한석, 2009)을 발간하는데 공을 세웠다. 수산체육공원 추진위원장, 학교살리기 추진위원장으로 임대주택을 완성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월드컵 세계국제 사격대회 심판위원, 충북제천 청풍광장 정보화 마을 자매결연(2016),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자매결연(2016), 명예이장 운영(명예이장 강덕재 제주지역농협본부장), 본향당 주차장 설치, 제2공항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제주도체육회 민선1기 스포츠과학센터 운영위원 (2020, 제주도 체육회)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만탁

수산1리 50대 이장, 15대 청년회장이다. 수산리에서 태어났다. 제2공항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복지회관 증축공사를 추진하였다. 2020년 수산지구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침수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류지 1개소(6,960㎡), 배수로 5조(4.289km)를 설치, 준공하였다.



김문식

수산1리 51대 이장. 수산리에서 태어났다. 제2공항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1980년도에 건립된 마을 복지회관 자리에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은 지상 1층 규모(연면적: 499.06㎡)로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2억 8천만 원이다.

사 장 훈 장 【師丈, 訓長】

- | | |
|------------|------------|
| ▲ 김계현(金啓鉉) | ▲ 한봉구(韓奉球) |
| ▲ 강남호(康南豪) | ▲ 오한봉(吳漢鳳) |
| ▲ 오성모(吳聖模) | ▲ 강태호(康泰豪) |
| ▲ 강종윤(康宗允) | ▲ 강만수(康萬壽) |

강봉휴(康鳳休)

사장(師丈). 강승보의 부친이다. 어린 시절 수산리 한봉구선생 밑에서 기초 교육을 받았으며, 이조말엽 수산리에서는 유일하게 전라도 광주에서 수학하여 돌아온 후 의숙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강승보(康承保)

1888(고종25)~1958
사장(師丈), 호는 誠菴.
제주 성산면 대운동 회³⁾ 씨름장에서 항일 활동. 성산면 수산리

1,293번지에서 강봉휴(康鳳休)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강권일의 조부이다. 1927. 5. 16일 성산면 체육대회에서 씨름대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1927. 12.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상해 및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미결기간 옥고를 치렀다. 당시 나이 40세였다.

* 문헌: 판결문(광주지법, 1927.12.16.), 대구복심법원(1928.12.15.), 동아일보(1927.5.28)

일제 치하였던 1927년 수산리에서 처음으로 청년단체를 조직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정의면 중앙청년회에서도 임원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했다. 지인학숙당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수산리 2,340번지 임야 12,597평에 해송 묘목을 식재하여 조림 사업에 주력하는 등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수산공립학교 초대 기성회장이었으며, 1963년 수산초등학교 증축 당시 토지 3천 8백 평의 현액한 공적을 기린 학교 경내 의연기념비와 학교 진성 남쪽 모퉁이에 세워진 또 하나의 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4·3사건 당시에 충남부대 본부 활동과 민보단이 운영을 위해 주택과 땅을 제공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강일현(康壹鉉)

재일교포. 향교훈장. 수산리 출신으로 강태만의 부친이다.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에 성공하

여 당대에는 수산출신으로는 큰 재력가였다. 수산초등학교 낙성기념 당시 1963년에 세워진 기념비와, 전화사업 후원기념비에 현액 명단자로 올려져 있다.

지금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자금 3천만 원을 회사하여 노인복지회관이 2층으로 건립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덕을 기리기 위한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이 외에도 고향사랑과 애향심을 발휘함은 물론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자재 등을 꾸준히 지원하였다.

고승주(高承周)

훈장. 고순신의 조부이다. 1918년에 개설된 거동서당(巨洞書堂) 훈장을 지냈다.⁴⁾

오희평(吳熙平)

지인학숙당 초대선생. 수산리 출신으로 오정휴의 부친이다. 1920년 지인학숙당 초대선생을 지냈고, 신구학문에 능통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3) 제주 성산면 대운동회: 1927. 5. 16일 정의면 청년회 주최로 열린 대운동회에서 정의면 청년들과 일본인 선원 간에 싸움이 벌어진 사건

4) 우리마을 삶의 문화, 성산읍편(서귀포 문화원, 2014)

면 장 읍 장
【面長, 邑長】

고명훈(高明勛)⁵⁾

고순신(高淳愼)

일제 강점기 시대인 정의면장. 고택권의 부친이다.



김태삼

성 산 면 장(1972~1973 13대), 국가유공자. 김윤수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6·25전쟁 중 설

악산전투, 884고지전투에 참가하였으며, 대위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남제주군교육청 교육위원과 성산면 교육위원으로 피선됐다. 대한무공수훈지회 남제주지회장, 성산읍자문위원과 성산농협진흥위원을 지냈다.



고인선

성 산 읍 장(1987~1992, 18대). 교사출신이며, 고성일의 부친이다. 수산4-H 구락부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1966. 1월에 4-H 자원지도자로 등록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당시 우리마을에 동네별로 있었던 3개의 4-H구락부를 통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주도적인 역

할을 하였다. 우리마을 농사개량단체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감귤산업이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지도자였다. 1967. 1월에 남제주군 4-H 자원지도자 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75년도에 수산초 자활급식 실험학교 설치를 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4-H자원지도자, 성산면영농기술자연합회장, 성산중학교총동창회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원, 라이온스클럽지구부총재를 역임했다.

국 가 유 공 자
【國家有功者】



강봉건

수산리 1,229에서 태어났으며, 강승일의 부친이다. 1950년 해병대(3기)로 입대하여 상병으로 제대하였

다.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고문철

수산리 1,275에서 태어났으며, 1969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

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이며,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2020. 6.)을 수상했다.

5) 고명훈(高明勛): 662페이지 참조



오석문

수산리 639에서 태어났다. 1965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강창익

상이군인. 수산리 579에서 태어났으며, 강대진의 부친이다. 1965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상병으로 제대하였다.



김봉옥

수산리 1,242에서 태어났으며, 김문식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고태순

수산리 1,520에서 태어났으며, 고승백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일병으로 제대하였다.



고상용

상이군인. 수산리 1,518에서 태어났으며, 고두봉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오기준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오용원의 부친이다. 1950년도에 수산초등학교 촉탁교사를 지냈고, 부동산중개업협회 제주지부 부지부장과 무공수훈자회 제주지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충무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강길호

수산리 406에서 태어났으며, 강희용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하였으며, 중사로 제대하였다. 수산1리 노인회장을 지냈다.



강봉선

수산리 1,218에서 태어났으며, 강승국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가했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강성규

수산리 1,146-3에서 태어났으며, 강문수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가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강승오

수산리 1,222에서 태어났으며, 강정운의 부친이다. 1950년 해병대로 입대하여 6·25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도솔산전투, 원산상륙작전에 참가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고부삼

수산리 1,136-2에서 태어났다. 1965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인헌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고순언(高淳彦)

수산리 1,284-5에서 태어났으며, 고민권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영월지구전투작전 등에 참가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장관의 공훈상을 수여했다.



고학권

수산리 1,145-1에서 태어났으며, 고대관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6·25전쟁 중 설악산, 향로봉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중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고학선

수산리 1,283-1에서 태어났으며, 고문철의 부친이다. 1950년 해병대로 입대하여 6·25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도솔산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중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1952.12.), 충무무공훈장(1953.1.), 충무무공훈장(1953.2.), 충무무공훈장(1956.12.)을 수훈했다. 지역개발위원과 4·3 유족회 성산읍분회장,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봉양

수산리 1,188에서 태어났으며, 김문신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6·25전쟁 중 동부전선, 중동부전선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김영기

수산리 796에서 태어났으며, 김문규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김태표

수산리 26대 이장. 수산리 381-1에서 태어났으며, 김윤정의 부친이다. 1950년 해병으로 입대하여 도솔산전투에 참여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1953.2)을 수훈했다.



김한석

수산리 1,184에서 태어났다. 김봉구의 부친이다. 1994년에는 마을지인 〈水山里誌〉를 발간하는데, 집필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09

년도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집필하였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하사로 제대하였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오석희

수산리 578에서 태어났으며, 오인범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지리산전투, 강원도 884고지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고춘권

수산리 1,549에서 태어났으며, 고영일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지리산전투, 강원도 884고지전투에 참여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오성훈

성산면 부면장. 수산리 565에서 태어났으며 오도근의 부친이다. 1950년 해병으로 입대하여 도솔산 탈환작전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하사로 제

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한태흥

상이군인. 수산리 250에서 태어났으며, 한명림의 부친이다. 6·25전쟁 참전용사이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오문학

상이군인.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오원일의 부친이다. 6·25전쟁 참전용사이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김두표

수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김석범의 부친이다. 특히 의술(醫術)이 뛰어나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치료를 위한 공덕이 크다. 육군헌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강덕률

1969년에 육군으로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오용원

수산리에서 태어났다. 1970년에 육군으로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한국문화원 연합회장, 평택문화원장, 서울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였다. 문화예술진흥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을 수훈했으며, 이외에도 한미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굳네이버 어워즈를 수상했다.



강계협

1966년에 해병대 청룡부대에 지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강정협

1969년에 해병대 청룡부대에 지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강윤보

1964년에 육군 맹호부대 지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고광신

1967년에 육군 백마부대 지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고태봉

1967년에 육군 맹호부대 지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강권희(권흥)

1969년에 육군 맹호부대 지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인헌무공훈장을 수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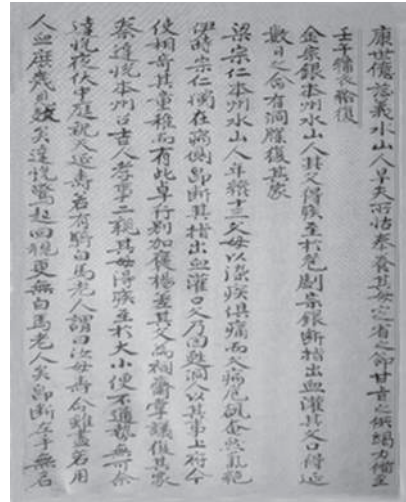
오도성

1964년에 육군 백마부대 지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孝子, 孝婦】⁶⁾

효자 강세억(康世億)

강세억(康世億)은 정의 수산 사람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밤이면 자리를 펴 드리고 새벽이면 안부를 묻는 절차나 맛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데에 힘을 다하고 지극한 예의를 갖추었다. 1822년에 조정화 위유어사가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하였다.



▲ 효열록. 孝子 康世億(1822년, 純祖22)

효부 고영도(高永鳶)의 어머니 강조이(召史)⁷⁾

효부 고영도(高永鳶)의 어머니 강조이(召史)는 정의 수산 사람이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효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였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모시고, 더운 여름에는 서늘하게 받들었으며,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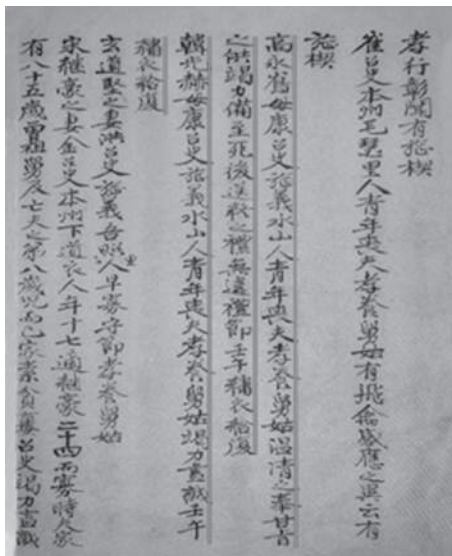
6) 우리마을 삶의 문화. 성산읍편(서귀포 문화원, 2014)

7) 召史: 康召史의 ‘召史’는 良人의 아내나 과부를 일컫는 말로 흔히 성밀에 붙여쓰며 그 俗音은 ‘조이’이다. ‘召史’라고도 쓴다.

좋은 음식을 공양하는데 힘을 다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마련하였다. 죽은 뒤에 장사를 지내는 법도는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었다. 1822년(순조 22)에 수의(繡衣)⁸⁾가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하였다.

효부 한광혁(韓光赫)의 어머니 강조이(康沼史)

효부 한광혁(韓光赫)의 어머니 강조이(康沼史)는 정의 수산 사람이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효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는 데 힘과 정성을 다하였다. 1822년(순조 22)에 어사가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하였다.



▲ 효열록. 孝婦 康沼史(1822년, 純祖22)

항일운동기타 【抗日運動, 其他】

강승보(姜承保)⁹⁾



김원두(金元斗)

제일교포. 수산리에서 태어 났으며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하였다. 1976년에 마을 숙원사업이던

수산리와 고성리 사이 진입로 포장 사업비를 쾌척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하였다. 지금도 마을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으며, 이 뜻을 기리기 위해 1976년에 세워진 김원두 공덕비가 있다.

고휴규(高休圭) 1884(고종 21)~

제주 성산면 대운동회 씨름장에서 항일 활동. 성산면 수산리 1,457에서 고익량의 아들로 태어났다. 1927. 5. 16일 청년회가 주최한 성산면 체육대회의 씨름대회 싸움으로 인해 체포되어 1927. 12.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상해 및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미결기간 옥고를 치렀다. 당시 나이 44세였다.

한원도(韓元道) 1909~

제주 성산면 대운동회 씨름장에서 항일 활동. 성산면 수산리 214에서 한태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1927. 5. 16일 청년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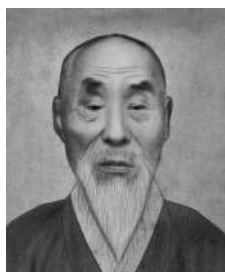
8) 수의(繡衣): 조정화 위유어사(지방의 천재지변(天災地變)이나 중대한 환란이 있을 때에 어명(御命)으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임시직)

9) 강승보(姜承保): 667페이지 참조

주최한 성산면 체육대회의 씨름대회싸움으로 인해 체포되어 1927. 12.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상해 및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미결기간 옥고를 치렀다.

김묘득(金卯得)

제주 성산면 대운동회 씨름장에서 항일활동. 성산면 수산리 591에서 김한돌의 아들로 태어났다. 1927. 5. 16일 청년회가 주최한 성산면 체육대회의 씨름대회싸움으로 인해 체포되어 1927. 12.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 상해 및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을 받았다.¹⁰⁾ 당시 나이 37세였다.



오응선(吳應璿)

오인범의 조부이다. 제주 성산면 대운동회 씨름장 사건과 관련하여 목포지원 예심 재판에서 면소자로 분류되었다.¹¹⁾ 당시 나이 35세였다.



고진후

수산1리 초대 노인회장. 고영보의 부친이다.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였으며, 1957년 현대식 학교건물을 증축할 당시 의연금 공덕을 기린 의연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조정훈

관광업. 성산동에서 태어나 수산에 정착하여 생활했으며, 조태흡(11대 이장)의 아들이다. 71년에 일본에서 귀국하여 제1회 통역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여행사 및 롯데관광(주) 동경지사장, 전무이사, 국제여행 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1986년도 새마을회관 건축 당시 성금을 기탁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덕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양정원

제주어 삼촌 가수겸 영화배우. 제주문화창작연구소 줄바로 대표이며, 수산1리 출신이다. 제주 사투리로 처음 창작하여 부른 노래가 <흐설 있당 가게> <우리어멍덜 하영 속앗수다>이다. 대표곡으로 잘 알려진 창작곡 <삼춘>이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영화평론가 협회상, 신인 연기자상을 받았으며, <지슬> OST 주제는 직접 창작하고 부른 <이어도사나>이다. 개인 창작 음반 7집, 영화 8편 주연 또는 조연하였고, 드라마 2편에 출연하였다. 대표곡으로는 <삼춘> <이어도사나> <비야비야 오지마라> <고향길> 등이 있다.

10) 우리마을 삶의 문화, 성산읍편(서귀포 문화원, 정순호, 2014), 디지털 서귀포 문화대전

11) 우리마을 삶의 문화, 성산읍편(서귀포 문화원, 정순호, 2014), 디지털 서귀포 문화대전

제 2 장 수산2리 인물사

구 장 【區長】

오창률

수산2구 초대 구장. 수산2리에서 거주하다 고성리로 이주했다. 고성리에 거주하는 오문호의 조부이다. 현 이사무소 부지를 기증하였으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보국

수산2구 2대 구장. 후손은 하도리로 이주하였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두원

수산2구 3대 구장, 초대 수산2리 농업협동조합장. 8대 이장 고대선의 부친이다. 수산2리 농업협동

조합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1954년 마을 재건 당시 세워진 복구기념비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명표

수산1구 4대 구장. 오남종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里長, 이장】



오관율

수산2리 2대 이장. 수산1구 초대 구장인 오창률의 동생이며, 오만표의 부친이다. 1954년 마을 재건 당시 세워진 복구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창인

수산2리 3대 이장. 23대 고갑권 이장의 부친이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양명보

수산2리 4대, 12대 이장, 국가유공자. 1964년 수산2리 농업협동조합 감사를 역임했으며, 양만길의 부친이다. 1978년 이장 재직시 수산2리 마을회관을 1층 25평 규모로 건립하여 큰 업적을 남겼으며, 1992년에 남제주군으로부터 수산2리 마을원로로 위촉되었다. 수산2리 초대 노인회장을 지냈으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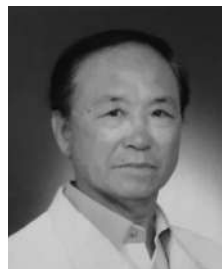
수산2리 5대, 7대 이장. 오왕석의 부친이다. 이장 재임 시절에 蔡殷日 女史의 사업비 지원으로 향사 수리를 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강승호**

수산2리 6대 이장. 강인보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남천**

수산2리 11대 이장. 21대 이장 고민호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강승진**

수산2리 13대 이장. 강성철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대선**

수산2리 8대 이장. 고규완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영훈**

수산2리 15대 이장. 고정민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윤석**

수산2리 9대 이장. 오홍식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영두**

수산2리 16대 이장. 오유성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남종**

수산2리 10대, 14대 이장. 오성규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성욱**

수산2리 17대 이장. 오봉식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성관

수산2리 18대 이장. 고승만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영조

수산2리 19대 이장. 오길성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강평관

수산2리 20대 이장. 강승필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민호

수산2리 21대, 22대, 27대 이장. 수산2리 복지회관을 신축하였으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고갑권

수산2리 23대, 24대 이장. 고성조의 부친이다. 군도 64호선 개통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법의 날을 맞

이하여 법무부장관상(2009)을 수상했다.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성익

수산2리 25대 이장. 오영식의 부친이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오성환

수산2리 26대 이장. 오욱의 부친이다. 재임 기간중 이사무소에 건광 관리실을 설치했다. 근정포장(2005)을 수훈했으며,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양만길

수산2리 28대, 29대, 30대, 33대 이장, 2대 청년회장. 오랜 기간 동안 이장을 역임하면서 제주자연생태공원을 유치하였으며, 특히 마을의 발전과 수익사업을 위해 임대주택 및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하였다. 일반작물부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수상(2018)을 했다. 서귀포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농촌지도자 성산읍회장, 남제주군 4-H 연합회장, 정읍태양광발전소 대표, 한라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지냈다. 제주특별자치도 씨름협회 부회장을 오랜 기간 역임하면서 우리 고유 민속씨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고대인

수산2리 31대, 32대 이장. 고준혁의 부친으로, 마을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2021년도 신축중인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하였다.

국가유공자 기타 【國家有功者, 其他】

채은일 여사

제일교포. 수산2리 21대 이장 고민호의 조모이다. 1968년 수산2리 향사수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를 했다. 채은일 여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공덕비가 수산2리 사무소에 세워져 있다.



오만표

수산리 2,438에서 태어났으며, 오상훈의 부친이다. 1950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서울탈환작전에 참여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고영규

상 이 군 인. 수 산 리 2,426에서 태어났다. 고길수의 부친이다. 1950년 6·25 당시 육군으로 입대하여 강원도 매봉산전투에 참가하였으며, 하사로 제대하였다.



고대오

중등교감. 도일주 역전마라톤 대회의 영웅이다. 중학교 2학년 때 교내 4·19기념 장거리대회에서 성산-온평간 왕복 8km를 완주 우승한 후 마라톤과 인연을 맺게 된다. 도일주 역전마라톤 경기에서 1회부터 8회 연속우승과 함께 전도체육대회에서는 모두 5회에 걸쳐 출전하여 총 13회의 우승을 차지했다. 1968년에 전도 제2회 체육대회에서는 성산수고 팀으로 출전하여 1,500m, 5,000m, 단축마라톤 등 3관왕을 차지하였으며, 제3회 대회에서는 2관왕, 제4회 대회에는 남군 선수팀으로 출전하여 3관왕, 제5회 대회에서는 제주육상사상 처음으로 42.195km의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55분 12초 8의 기록으로 우승과 함께 1,500m와 5,000m 경기등 이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제6회 대회에는 일반부 제주대팀으로 출전하여 1,500m와 10,000m경기에서 우승을 하였다.

1986년에는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육상 심판 임원, 1988년도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 육상 심판 임원, 2003년도부터 제주도 육상경기연맹 고문직을 맡고 있다.



고용호

정치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 11대 의원, 11대 상반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제

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의정 활동 기간 중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8)을 수상하였다. 성산읍 노인회관 및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으며, 각 마을별로 이사무소,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물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다.



오동현

수산2리 34대 이장. 현대식 마을회관을 건축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41.5㎡이다.



